

미국 퍼블릭 히스토리와 원주민 (Native American)의 역사

박 진 빈

I. 서론

II. 구술사와 원주민학

III. 박물관과 원주민사

IV. 임파워먼트와 국립 아메리카인디언

박물관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퍼블릭 히스토리의 실천이 미국 원주민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한다. 첫 번째로 퍼블릭 히스토리와 구술사의 대두가 원주민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구술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원주민학의 발전이 기존 역사학과 대립 갈등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이나 고고학 등 원주민을 역사적으로 다루어왔던 영역의 변화를 추적하여, 퍼블릭 히스토리의 진전이 원주민의 유골과 유물의 전시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과 더불어 강조되었던 원주민 임파워먼트가 국립 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개장에서 폭발된 논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본다. 대중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시작된 퍼블릭 히스토리가 역사학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권운동의 여파로 성장하고 있던 원주민의 자의식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퍼블릭 히스토리의 대두는 원주민사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사회에서 원주민의 역사적이고 현재의 지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I . 서론

미국 역사학계에 하나의 분야로서 ‘퍼블릭 히스토리’가 대두된 것은 1970년대였다.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 바바라(UCSB)의 사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가 처음으로 퍼블릭 히스토리 전공의 박사과정을 개설한 것이 1976년이고, 그와 그의 목적의식에 공감하는 역사가들이 전국 퍼블릭 히스토리 협회(National Council on Public History)를 조직하고 『퍼블릭 히스토리언(The Public Historian)』이라는 학회지를 펴내기 시작한 것이 1978년의 일이었다.¹⁾

켈리와 그의 동지들은 역사학 박사들의 취업난, 특히 대학교수직의 부족함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존 역사학이 대중과는 분리되어 강단에 갇혀있었다고 반성하며,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 부응하지 못해왔기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뿐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 대중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조직을 시작함에 있어 기존에 대학 강단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발표하였다. 첫째, 대학 밖에서 일하는 역사가들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대학(원)생들에게 학계 밖의 역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며, 셋째, 미국 내에서 퍼블릭 히스토리의 위치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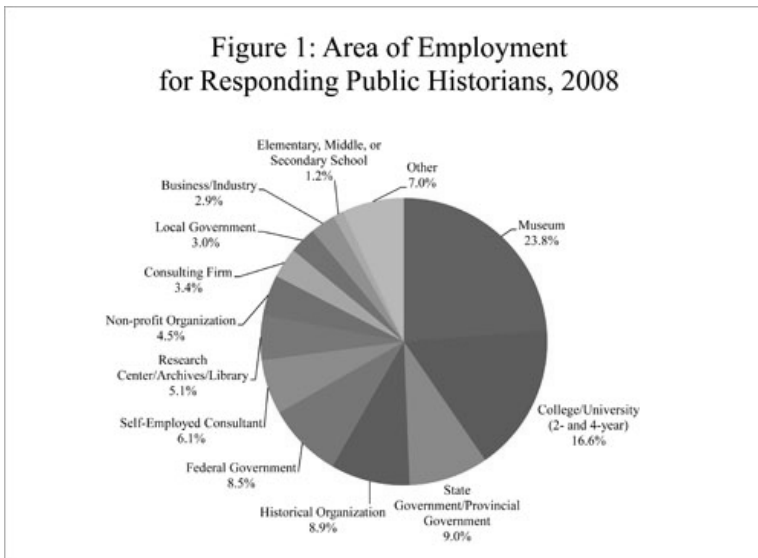
1976년 이래 퍼블릭 히스토리는 수많은 학회원을 확보하고, 역사학계 내에서 상당한 논의의 장을 점유하였으며, 대학 내에 관련 프로그램들의 엄청난 확산 현상을 경험했다. 1990년대에 미국 내 60여개의 대학에서 퍼블릭 히스토리에 관한, 혹은 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고, 그 숫자는 2008년에는 110곳 이상으로 증가

1) Thomas Cauvin, *Public History: A Textbook of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6), pp. 9-10.

2) Denise Meringolo, *Museums, Monuments, and National Parks: Toward a New Genealogy of Public History* (Amherst and 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2), pp. xiii-xxv.

했다. 학부 교과과정부터 특수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역사의 이론과 실습을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목표한 대로 역사교육계와 역사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영역은 대중적으로 역사가 해석되고 표현되는 곳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역사보존,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출판과 다양한 매체 등의 분야였다. 퍼블릭 히스토리언들은 이런 영역에 전문 역사가들이 부재(혹은 부족)했던 이유는 강단 역사가 이런 영역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고 반성하면서, 이제 역사학도들이 이런 “대안적 커리어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림 1> 퍼블릭 히스토리언들의 진출 분야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³⁾

3) John Dichtl and Robert Townsend, “A Picture of Public History: Preliminary Results from the 2008 Survey of Public History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History* (Sept. 1, 2009).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september-2009/a-picture-of-public-history> (2018년 10월 12일 검색).

미국 원주민사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좋다. 미국 사회에서 원주민의 역사는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미국인’의 역사의 일부가 아닌 까닭에 인류학에서 다루어왔고, 그들의 고대사는 고고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자연사박물관이 미국 각지에 설립되면서, 미국의 역사 내러티브의 시작점에 원주민을 위치시키기 위해 원주민 유물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집트와 아시아 지역에 발걸음을 가듯 미국 영토 내부도 발굴하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의 역사는 백인의 시각에서 정리되어 고고 유물로 전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원주민의 자의식이 강화되면서 스스로의 역사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백인 시각에서 정리되었던 그들의 역사를 원주민 스스로 재구성하고 이야기하기를 희망했고, 때마침 싹트고 있던 퍼블릭 히스토리나 접목하게 되었다. 특히 원주민사가 박물관이나 지역사와 밀접하다는 것, 그리고 구술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퍼블릭 히스토리와의 접점이 쉽게 형성되었다.

원주민의 역사와 퍼블릭 히스토리는 그러한 교차점들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전자가 소수 집단이라는 주제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는 역사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원주민의 역사에서는 특정 시대나 사건과 같은 부분이 연구되는 성과들이 많은 반면, 퍼블릭 히스토리는 주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습 실용서들을 생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두 역사학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고, 각각의 연구에서 서로를 호명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⁴⁾ 이 글은 기존의 연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퍼블릭 히스토리의 진전과 원주민사의 변화의 직접적인 교차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루기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은 퍼블릭 히스토리의 실천이 미국 원주민사에 어떤 영향을

4) 예컨대 이 글에서 인용된 Rickard나 Fox, Ronan의 논문들은 모두 박물관이 원주민사를 다루는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퍼블릭 히스토리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룬다기 보다는 원주민사의 문제로 조망하는 태도를 취한다.

미쳤는지 논하기 위해 크게 세 개의 영역에서 아직 진행 중인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퍼블릭 히스토리와 구술사의 대두가 원주민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구술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원주민학의 발전이 기존 역사학과 대립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이나 고고학 등 원주민을 역사적으로 다루어 왔던 영역의 변화를 알아본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이 역사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킨 결과가 원주민의 유골과 유물의 전시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과 더불어 강조되었던 원주민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그에 대한 반작용이 충돌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국립 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개장으로 폭발된 논쟁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대두는 다시 한 번 원주민사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원주민의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지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II. 구술사와 원주민학

미국 사회에서 원주민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이지만 유럽 백인에게 밀려나 소수로 전락했고, 미국 건국과 더불어 헌법상에는 국내의 외국인으로 규정되었다가 19세기 말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원주민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질적인 고대 문명과 공존하게 만드는 특수한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 유지와 시대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 사이에서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곁돌고 있는 사람들이다.

1924년 제정된 원주민 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으로 비로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원주민이 미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흑인보다도 늦은 시민권의 부여였고, 이미 원주민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숫자가 줄어든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주민은 “암호해독자”로서 활약했고, 돌아와서는 GI(제대군인) 법의 수혜를 받아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게 되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52년에 원주민 재정착법(Indian Relocation Act)이 제정되어, 보호구역을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이때에야 원주민의 직업교육을 장려하고,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1952년부터 보호구역을 떠나기 시작한 원주민들은 1960년까지 3만 1천명이, 그리고 1980년대 말까지 7십5만 여명이 보호구역 밖에서 삶의 터전을 내렸다. 그 중 70% 이상이 도시 생활에 적응하고 자립하여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이나 가족과 떨어져 소수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은 고독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감에 고통 받고, 낮은 임금의 육체노동만이 허락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돌아갈 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⁵⁾

민권운동과 68혁명은 원주민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지에서 도시로 나온 원주민들의 단체와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1969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원주민들이 알카트라즈 섬을 점거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하여 이목을 끌었다. 300년 전 거의 무상으로 대륙 전체를 빼앗겼지만 단 16에이커의 땅이라도 원주민 마음대로 점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방 교도소가 철거된 뒤 유원지로 개발될 계획이었던 섬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18개월의 점거 생활은 결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강제 출도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지역 원주민 권리 운동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⁶⁾

사건이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미 1961년에 베이지역 인디언 문제 위원회(United Bay Area Council of American Indian Affairs)가 창설되어 상호부조 및 자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했다. 또 다

5) Melissa Walls and Les B. Whitbeck,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n Relocation Policies in Indigenous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33, no. 9 (2012), pp. 1272-1293.

6) 박진빈, 「미국 원주민의 알카트라즈 점거 사건의 의의」, 『동국사학』, 제44집 (2008. 6), pp. 157-180.

른 지역 단체인 인디언 공동체 행동 프로그램(Indian Community Action Program)이 원주민 문화 전수와 교육에 힘쓰고 있었고, 또 원주민 연합(Unted Native Americans)은 부족을 초월하여 모든 원주민의 단합을 주장하면서 급진적인 행동을 추진하기도 했다.⁷⁾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196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창설된 조직 AIM(American Indian Movement)은 1969년 알카트라즈 점거를 지원한 뒤 연방시설 점거 운동을 연쇄적으로 주도해 나갔다. 특히 원주민의 삶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전통적 생활방식을 방해한 댐과 같은 구조물과 연방정부의 원주민 정책을 억압적으로 실행했던 원주민 사무국 건물, 그리고 원주민들 최후의 항쟁 전투 장소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며 원주민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아직은 과거와 화해할 수 없음을 알렸다.⁸⁾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퍼블릭 히스토리는 원주민사와 조우하게 되었다. 두 역사학이 모두 지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류 역사학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의 역사가들이 국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대한 흐름에 집중하는 동안, 지역사자들은 지역민/대중과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이러한 지역사의 전통은 특히 1950-1960년대의 소수집단, 소외집단 운동과 결합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미친 이른바 “문화적 전환”으로 민중, 여성, 흑인, 원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그들에 대한 역사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퍼블릭 히스토리는 1970년대에 유행한 또 다른 흐름인 구술사와도 결합하였다. 구술사는 역사에 목소리를 남기지 못한 세력을 역사화하는 방법으로써 지역에 잔존하는 기억이나 기념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정착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먼 대중이 역사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다가갈 방법을

7) Adam Fortunate Eagle, *Alcatraz! Alcatraz! The Indian Occupation of 1969-1971* (Berkeley: Heyday Books, 1991), pp. 19-43.

8) Troy R. Johnson, Joane Nagel and Duane Champagne, ed., *American Indian Activism: Alcatraz to the Longest Walk*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pp. 25-39.

찾던 퍼블릭 히스토리언들이 구술사와 지역사에 주목하는 동안, 미국 구술사 분야의 선구자인 그렐리(J. Ronald Grele)는 켈리의 노력을 극찬하고 나섰다. 그들은 함께 정통 역사학이 추구하던 방법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했다.⁹⁾

구술사까지 더해지면서 퍼블릭 히스토리는 사료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객관성을 중시하고 문서 사료에 집중했던 강단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고 대중에게 해석해 내놓기 위해 다양한 분과들, 미술사, 언어학, 사회학, 문화연구, 박물관학, 인류학, 고고학 등과 교섭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퍼블릭 히스토리는 하나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폭넓고 다양한 영역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

구술사의 등장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막 태동하고 있던 원주민학이었다. 당시 원주민 사회는 민권 의식의 성장에 힘입어 학술적으로 그들의 역사와 현실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상태였다. 원주민학의 성장은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부족 대학(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부족 대학은 원주민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그들만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보호구역 내부 혹은 인근에 설립되어 대학교 교과 과정 교육, 학점 은행제 학위제도, 그리고 직업교육 등을 개설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이지역 인근에는 1968년에 D-Q 대학(Deganawidah-Quetzalcoatl University)¹⁰⁾이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 32개의 부족 대학이 운영 중이다.

부족 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기존의 주요 대학 내부에 원주민학 교과 과정을 개설하려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D-Q 대학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포브스(Jack Forbes)는 미국 내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앞선 1969년,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에 원주민학 과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업대학 응용과학과 안의 프

9) Meringolo, *Museums, Monuments, and National Parks*, p. xxii.

10) 데가나와다는 16세기 이로콰이 동맹을 만든 위대함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이며, 퀘잘코틀은 마야와 아즈텍 문명 지역에서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이다.

로그로 시작했던 원주민학 과정은 1975년 전공과정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1989년에 연계전공으로서 문과대학으로 이전한 뒤, 1993년에 독립된 학과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런 식으로 1970년대 이후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원주민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지금까지 원주민을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화하여 그들에 대한 진리를 외인적(exogenous)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그들 내부로 들어가 원주민에 대한 내생적(endogenous) 연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의 세계관과 역사에 대한 지적인 정보들을 수합해야 했는데, 그것은 원주민의 언어와 장소성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데에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의 대지’에서 나온 구술 전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주민학은 각각의 특정 장소성을 띠고 있는 구술 전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구술사의 방법이 강조되었다. 이는 백인들이 구축해 온 인류학이나 민족학적 접근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기도 했다.¹¹⁾

그런 의미에서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도리스 듀크가 수집한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일리노이, 플로리다 지역의 원주민 구술 자료들은 매우 획기적인 사료였다. 그때까지는 백인의 관점에서 관찰했던 원주민사였다면 이제는 원주민의 관점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원주민학에서는 기존 역사학이 구술사를 포용하기는 했으나 그마저도 정해진 틀 안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사료 가운데 하나로서 대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주민학이 다루는 구술 사료는 ‘사회적으로 축조된 기억의 특성’과 구술자의 주체성,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와 희망사항까지 포함한 개인의 기억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¹²⁾

11) Elizabeth Cook-Lynn, “Who Stole Native American Studies?,” *Wicazo Sa Review*, vol. 12, no. 1 (Spring, 1997), pp. 9-28.

개인의 감정까지 포함한 구술을 다루는 것을 역사라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진실로 수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그 가능성도 없는 것을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이다. 이러한 논쟁은 퍼블릭 히스토리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한 피터 노빅의 『그 고귀한 꿈: ‘객관성’ 문제와 미국 역사학계』의 예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퍼블릭 히스토리가 가져온 충격에 기존 역사학계에서 사료 중심의 역사, 객관성 추구의 역사를 중시하던 학자들은 맹렬히 반응했다. 이들은 퍼블릭 히스토리의 범람에 우려를 보내며, 퍼블릭 히스토리의 과도한 유행은 역사학의 정치화, 즉 현재적 문제에 답하려는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에 이용될 가능성을 증폭시킨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팔리기 위해 대중에게 가까이 가야한다는 주장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역사로 흘러 정치 논리나 거대 자본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현재가 역사를 좌지우지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퍼블릭 히스토리는, 노빅의 표현에 따르면, 역사학의 본령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학문정신(the universalist ethos of scholarship)” 즉, “그 고귀한 꿈”과는 정 반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노빅의 우려와 경고는 구술 자료를 그 어떤 문서 자료만큼이나, 혹은 그 보다는 더 우위에 두는 원주민사나 원주민학에 직통으로 향하고 있다. 원주민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술, 문학, 역사 어느 것이든 구술된 기억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구술된 기억은 시공간이 뒤섞인 내러티브이며, 신화와 역사와 개인의 기억이 혼재하는 연술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영역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일까? 퍼블릭 히스토리와 구술사의 진전과 더불어 원주민학이 학계에 공식적인 자리를 점하였지만, 과학적 역사와 구술 전통 사이의 괴리에 대한 고민을 더 심화시켜 놓고 말았다.

12) James Lagrand, “Whose Voices Count? Oral Sources and Twentieth-Century American Indian History,”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vol. 21, no. 1 (1997), pp. 73-105.

13) Peter Novick,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Ⅲ. 박물관과 원주민사

퍼블릭 히스토리가 원주민의 자의식을 자극하고 학문적 접근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원주민의 역사(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었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법들이 만들어졌다. 1960년 침수지법(Reservoir Salvage Act)은 댐건설 시 수몰 예정지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필요할 경우 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6년 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과 1979년 고고자료보호법(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은 “인간 육체 유물(human physical remains)” 발견 시 해당 원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유물들의 소속은 여전히 연방정부이며 그 특성은 고고학적 자료로 규정되어 있었다.¹⁴⁾

미국 원주민은 역사와 현재가 겹쳐진 특수한 존재이다. 미국 원주민은 백인의 조상이 아니므로 원주민사는 미국의 고대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대학 교과 과정에서 원주민사는 미국사와 별도로 존재하며,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사 부분은 인류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 복잡한 그들의 지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듯,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은, 그 역사와 유물은,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해석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사료에 근거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원주민의 역사를 매우 어려운 영역에 위치시켰다.¹⁵⁾

1970년대 들어 주별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거나 새로이 발굴되는 원주민 유골 반환과 재매장을 요구하는 항의가 거세어졌다. 그동안 원주민들은 ‘어머니의 대지’에 묻혀 있던 그들의 조상의 유골과 유물이 파헤쳐져 전시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특히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견

14) Kathleen Fine-Dare, *Grave Injustice: The American Indian Repatriation Movement and NAGPR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2), pp. 62-84.

15) 미국의 원주민의 독특한 지위와 비견할 만한 영국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박물관 전시 문제에 대해서는 장예나, 「영국의 인간 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Homo Migrants』, 17호 (2017. 11), pp. 31-61.

된 백인 유골의 경우는 재매장되는 반면 원주민의 것은 실험실로 보내지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원주민 사회는 분노하고 있었다. 한번 실험실로 가서 박물관 등으로 간 유물은 되팔리거나 도난되거나 하는 과정에 노출되었고, 결국 영원히 그들이 중시하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원주민들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제사나 주술 용품의 경우 농촌에서 벌어지는 장터나 축제, 페스티벌 등에서 열리는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발은 1990년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법(Native American Grave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낙프라)’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국가 소유의 토지나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문화적 물품에 대한 원주민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발견되는 유골과 장례부품은 그 적통 후손의 소유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법은 또한 연방 기관과 박물관, 그리고 연방 기금을 보조받는 모든 기관으로 하여금 소장하고 있는 원주민 유골, 장례물품, 성물 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하고 후손이 요구할 시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¹⁶⁾

그러나 원주민의 역사에 대한 권리를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에서 말하는 장례부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어디까지가 성물로 인정될 것인가. 또한 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적통 후손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각 박물관 담당자들이 목록 작업과 반환에 드는 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동안,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도 심각한 반론을 제기했다. 많은 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오는 유골과 유물은 “전 인류의 조상”이므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기원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원주민의 “원혼을 달래고” “어머니의 대지로 회귀”시키는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한 과학 연구보다 중요한가?¹⁷⁾

16) Michael Brown, “Exhibiting Indigenous Heritage in the Age of Cultural Property,” James Cuno, ed., *Whose Culture? The Promise of Museums and the Debate over Antiqu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145-164.

17) Rebecca Tsosie, “Indigenous Rights and Archaeology,” Nina Swindler, Kurt Dongoske, Roger Anyon, and Alan Downer ed., *Native Americans and Archaeologists: Stepping*

낙프라와 관련된 원주민사의 복잡한 사정은 ‘케네윅 맨 사건’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케네윅 맨은 1996년 워싱턴 주 콜럼비아 강가에서 발견된 인간 유골로, 발견된 지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발견 직후 연대 추정치가 9,300년 전까지 올라가면서 세계적으로 발견된 인간의 유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낙프라에 따라 지역 원주민인 우마틸라(Umatila)가 유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초기 조사자가 이것이 코케이지언 남성이라고 분석하는 결과를 내놓자 사건은 매우 복잡해졌다. 케네윅 맨이 코케이지언이라면 미국 인디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낙프라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은 코케이지언일지도 모른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낙프라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¹⁸⁾

우마틸라 부족과 유골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인 미 육군 공병대 사이의 재판 결과는 2004년에 나왔는데, 현존하는 어느 원주민 부족과도 케네윅 맨의 생물학적 연결이 증명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논쟁은 지속되었고, 그 사이 케네윅 맨은 전년도 더 이상의 연구도 되지 못한 채 그냥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이후 발전된 기술력 덕분에 이루어진 DNA 조사를 통해 마침내 2014년 최종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2015년에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케네윅 맨의 연대는 8,500년 전으로 추정되며, 현대 미국 원주민과 연관이 있다.¹⁹⁾ 원주민과의 혈연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케네윅 지역의 여러 부족들은 케네윅 맨의 장례를 공동으로 치를 것에 동의하였고, 2017년 2월 18일 부족의 장례 절차에 따라 콜빌 보호구역(Confederated Tribes of the Colville Reservation)내의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 재매장되었다.²⁰⁾

Stones to Common Ground (Walnut Creek: Alta Mira Press, 1997), pp. 64-76.

18)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논집』, 제43집 2호 (2011), pp. 147-170.

19) Douglas Owsley and Richard Jantz, *Kennewick Ma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an Ancient American Skele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4).

20) “Tribes Lay Remains of Kennewick Man to Rest,” *The Spokesman-Review* (Feb. 20, 2017).

퍼블릭 히스토리의 주요한 관심 장소이자 주제로서 박물관이 재조명된 결과 원주민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한 고민은 케네딕 맨 사건과 같은 의외의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케네딕 맨 사건은 철저히 대상화되어 전시물로 취급되던 원주민의 역사가 원주민 스스로에 의해 정리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되기 위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고고학자들이 제기한 반대는 신랄한 것이었고, 또 언제고 케네딕 맨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었다.

고고학자들의 반론은 역사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맡아왔던 연방 공무원들의 퍼블릭 히스토리에 대한 반감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19세기 말 이후 국립공원이나 스미소니언을 중심으로 국토와 국민의 역사화를 진행해왔던 국립공원서비스나 문화재관리청 등에서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새삼스런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교육이 역사 관련 연방 업무를 관장할 공무원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고 인식해 왔고, 따라서 나름대로 필요한 “새로운 기술자들”을 양성해왔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대안적 커리어들”을 추구한다며 그들의 영역으로 노골적인 접근을 시도하자, 1980년에 대응을 위한 조직인 연방 공무원 역사가협회(Society for Historians in the Federal Government)를 만들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²¹⁾

퍼블릭 히스토리의 성과로 원주민 역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성장하고, 낙프라와 같은 법이 그 성과로 만들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최종적인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보다는 사료 중심, 연구 실험실 중심, 기존 학계의 객관적 방법론 중심적인 영역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원주민 역사를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논쟁 속에 놓아두게 되었다.

21) Meringolo, *Museums, Monuments, and National Parks*, p. xix.

IV. 임파워먼트와 국립 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원주민의 구술사나 원주민의 유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 기존 역사학계의 객관적 접근법에 문제제기를 하며 논쟁을 촉발했던 것이라면, 그 논쟁의 정점을 이룬 사건이 바로 국립 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MAI)의 개관이었다. NMAI의 개관과 관련하여 전개된 일련의 논의들은 퍼블릭 히스토리의 주요 영역인 박물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NMAI 설립의 필요성은 낙프라의 제정에 즈음하여 스미소니언(Smithsonian Institution) 역시 12,000-18,000여 점의 원주민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대두되었다. 그 가운데 5,000여 점의 인체 유골과 성물을 각 부족에게 되돌려 주고 난 뒤, 소속을 알 수 없는 나머지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것들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a living memorial)’을 만들자는 뜻으로 1990년 NMAI가 설립되었고, 거기에 뉴욕시의 유서 깊은 하이 박물관(Heye Museum)의 수장품의 기증을 받아 마침내 2004년 9월, 수도 워싱턴의 박물관 거리에 스미소니언의 16번째 박물관인 NMAI가 개장하기에 이르렀다.²²⁾

박물관 거리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너편에 연노랑빛 석회암의 곡선이 눈에 띄게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새로운 박물관 건물이 대중에게 열리던 날, 전국의 500여 부족 출신의 2만 여 명을 포함한 인파가 몰려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6일간의 ‘원주민 주간’ 동안 박물관 거리를 원주민들의 음악과 춤과 이야기로 가득 채우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 오백여년 간의 전쟁과 파멸과 배신과 실패, 그리고 타협과 재발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여기에 있다”는

22) 하이 박물관은 은행가이자 철도 개발 사업가인 조지 구스타브 하이가 1903년부터 수집한 원주민 유물과 민속 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해 1922년 개장했으며, 세계에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의 유물을 가장 많이(약 80만 점)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을 자랑했다.

선언을 하는 듯 했다.²³⁾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이 박물관은 여러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에 대한 것으로 가짜 유물이나 잘못된 설명 등이 문제였다. 그것이 비교적 수정하기 쉬운 문제였다면, 전체적인 짜임새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했다. 어떤 평론가는 이 박물관은 각 부족마다 공간을 얻어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화, 유물, 그리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전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큰 맥락을 설명하지 않는 잡동사니의 더미와 같다고 혹평을 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8천 여 점의 이러 저러한 물건이 펼쳐져 있으나,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만한 “생각의 집착제”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²⁴⁾

이 같은 혹평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물관 건물의 설계부터 전시물의 종류와 배치까지 여러 부족 원주민들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결정된 박물관이 이러한 비난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인 시각으로 박물관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NMAI는 그 내러티브의 방식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박물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중의 이해도가 떨어졌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성을 열어두는 방식이 관람객에 따라서는 ‘비학문적’이며 ‘비전문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그런데 이것은 박물관 기획에서부터 의도된 부분이었다. NMAI는 애초부터 박물관의 직원, 원주민 일반인(폴뿌리), 그리고 원주민 학자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는 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줄거리로 전체 박물관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박물관은 의도적으로 하나의 내

23) Edward Rothstein, “Museum with an American Indian Voice,” *The New York Times* (Sept. 21, 2004).

24) Marc Fisher, “Indian Museum’s Appeal, Sadly, Only Skin-Deep,” *The Washington Post* (Sept. 21, 2004); Paul Richard, “Shards of Many Untold Stories: In Place of Unity, A Melange of Unconnected Objects,” *The Washington Post* (Sept. 21, 2004).

25) Claire Smith, “Decolonising the Museum,” *Antiquity*, vol. 79, issue 304 (Jun. 2005), pp. 433-435.

러티브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또한 각 전시실이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서, 어떤 방은 직원과 일반인의 협업에 의해 전시물이 결정되기도 했고, 또 다른 방은 원주민 학자들의 주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의 다양성도 확보하였다. 그들은 원주민들도 하나의 집단이 아니며, 원주민 역사에 대한 해석까지도 원주민들 사이에서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박물관에도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려 했다는 것이다.²⁶⁾

본래 박물관의 발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온 것이었음을 기억한다면, NMAI의 문제의식은 퍼블릭 히스토리 영역에 불어닥친 탈식민주의적 노력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신박물관학”의 탄생을 말하면서, 식민주의의 소산이었던 구분짓기, 경계 정하기, 타자화, 그리고 계서적 분류표 만들기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런 의미에서 NMAI의 초대 관장을 지낸 리처드 웨스트(Richard West)가 이 박물관은 전문가들의 ‘신전’과 일반인들과의 ‘포럼’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한 것은 NMAI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역사 구현 방식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NMAI는 많은 원주민들을 채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물론 관장인 웨스트를 포함하여 원주민 출신이면서 인류학자이거나 역사학, 민속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기획에서부터 참여를 했으나, 박물관 개장부터는 부족을 대변할 관람 도우미들을 배치하여 전시관에서 직접 설명을 담당하게 했다. 이들은 이른바 ‘문화 통역자(cultural interpreters)’

26) Jolene Rickard, “Absorbing or Obscuring the Absence of a Critical Space in the Americas for Indigeneity: The Smithsonian’s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no. 52 (Autumn, 2007), pp. 85-92; Edward Rothstein, “Who Should Tell History: The Tribes or the Museums?” *The New York Times* (Dec. 21, 2004).

27) Paul Fox, “Memory, the Museum and the Postcolonial World,” *Meanjin*, vol. 51, no. 2 (Winter, 1992), pp. 308-318; Linda Tuhiwai Smith, *Decolonizing Methodologies: Research and Indigenous Peoples* (Dunedin: University of Otago Press, 1999), p. 8.

28) W. Richard West and Amanda J. Cobb, “Interview with W. Richard West, Director,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merican Indian Quarterly*, vol. 29, no. 3/4 (Summer-Autumn, 2005), pp. 517-537.

로서 박물관에서 활동하며, 원주민 임파워먼트 운동이 강조해 온 자의식과 역량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 전시물에서 원주민의 생존(survivance) 내러티브와 고대 문화로부터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⁹⁾

박물관의 이름에 들어있는 ‘아메리카’는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의미하며, 전시물은 남아메리카의 유물들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그들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 전체 원주민들의 공통점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부족도 대표성을 지니거나 유일한 발언권을 지닌 존재로 표현되지 않게 유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선택이 식민지 시기의 단절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해 온 원주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말하자면 탈식민적으로 식민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아젠다가 상실된 무비판적 전시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³⁰⁾

어쩌면 NMAI에 가해진 비판과 비난은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국립 박물관의 숙명에서 비롯된 작은 결함에 대한 가혹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설립 취지문에 주목해 보자.

“스미소니언 협회의 NMAI의 사명은 원주민 공동체와 비원주민 대중에게, 원주민과의 의논, 협업, 협동을 통해 예술, 역사, 언어를 포함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그리고 혁신적인 대중적 프로그램과 연구와 수집을 통해 이 박물관의 특별한 임무가 원주민 문화와 공동체의 발전, 유지, 영속을 보호하고 원조하고 강화하는 것임을 인식함으로써, 서반구의 원주민의 역사적, 현재적 문화와 문화적 성과를 확인하

29) 이들은 보통 생존을 의미하는 ‘survival’은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겨우 살아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surviv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역경의 승리자로서 생존을 강조한다. Kristine Ronan, “Native Empowerment, the New Museology, and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Museum & Society*, vol. 12, no. 2 (Jul. 2014), pp. 132-147.

30) Mary Lawlor, *Public Native America: Tribal Self-Representation in Casinos, Museums, and Powow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pp. 18-20; 황혜성, 「국립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포스트식민박물관의 음영」, 『미국사연구』, 43집 (2016. 5), pp. 217-252.

는 것이다.”

이 복잡하고 장황해 보이는 사명은 모두를 대변하고 모든 것을 담으려 한 지나친 책임감의 산물일 지도 모른다.

루이지애나 주립 박물관의 성공담은 NMAI의 방향성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이곳에서 2009년에 선보인 원주민 생활사 전시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여러 요소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한 지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룬다는 것과 원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기획부터 획득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1년여에 걸친 준비를 통해 실현되었다. 1단계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전시에 필요한 텍스트(내러티브)를 완성했고, 2단계에서 그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족과 학계에 그 내용을 알리고 코멘트를 요청했다. 코멘트에 따른 수정 작업은 문화 통역자들이 담당했고, 전시물의 확인 작업은 원주민의 기억이나 구술 문화와의 일치 여부까지 따져서 결정했다.³¹⁾

따져보면 NMAI의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참여 유도형이고 다원적인 전시 방법이 루이지애나의 경우에는 극찬을 받고 지역 내의 호응도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만족시켜야 할 관람객의 층이 더 단순했기 때문은 아닐까? 비교적 제한적인 지리 범위 내에서 관련되는 원주민과 비원주민 주민을 만족시키는 것과 전국의, 또는 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및 비원주민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상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NMAI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퍼블릭 히스토리가 탈식민주의를 추구하는 박물관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1) Charles Chamberlain, "Interpreting Native American History at Public History Institutions: The Louisiana Exhibit as a Case Study," *Native South*, vol. 3 (2010), pp. 125-132.

V. 결론

이 글은 퍼블릭 히스토리의 발전과 원주민 역사학의 전개가 점점을 이루는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재검토이다.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퍼블릭 히스토리의 특성상 그것이 원주민 역사학에 미친 모든 영향을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사에 바탕을 둔 원주민학의 발전이나 유골 매장에 관한 법과 태도의 변화, 그리고 박물관의 원주민 역사 전시의 새로운 시도 등은 퍼블릭 히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작용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원주민사는 박물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퍼블릭 히스토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특별한 여정을 거치고 있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퍼블릭하게, 퍼블릭에 대해, 퍼블릭을 위해” 연구한다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목표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원주민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술사나 역사 전시와 같이 원주민사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서 특히 그동안 퍼블릭 히스토리가 쌓아온 성과가 두드러진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진전이 원주민의 자의식 성장과 주체적인 역사화 작업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와 더불어 역사학계 내부의 논란과 분쟁을 심화시켰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갈등은 ‘퍼블릭’ 히스토리가 그 본성상 다양한 화자와 다양한 대상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술사의 사료로서의 가치, 낙프라법의 적용 범위와 의미, 그리고 도처에 존재하는 원주민 박물관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역사학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의미 있는 갈등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경희대학교 / 교수)

(투고일: 2018. 11. 12, 심사개시일: 2018. 11. 18, 게재결정일: 2018. 12. 09)

참고문헌

- 박진빈, 「미국 원주민의 알카트라즈 점거 사건의 의의」, 『동국사학』, 제44집 (2008. 6).
- 박진빈, 「미국 원주민 유물 처리 문제와 반환법의 역사적 의미」, 『미국학논집』, 제43집 2호 (2011).
- 장예나, 「영국의 인간 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Homo Migrants*』, 17호 (2017. 11).
- 황혜성, 「국립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 포스트식민박물관의 음영」, 『미국사연구』, 43집 (2016. 5).
- Brown, Michael, “Exhibiting Indigenous Heritage in the Age of Cultural Property,” James Cuno, ed., *Whose Culture? The Promise of Museums and the Debate over Antiqu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Cauvin, Thomas, *Public History: A Textbook of Practi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6).
- Chamberlain, Charles, “Interpreting Native American History at Public History Institutions: The Louisiana Exhibit as a Case Study,” *Native South*, vol. 3 (2010).
- Cook-Lynn, Elizabeth, “Who Stole Native American Studies?,” *Wicazo Sa Review*, vol. 12, no. 1 (Spring, 1997).
- Eagle, Adam Fortunate, *Alcatraz! Alcatraz! The Indian Occupation of 1969-1971* (Berkeley: Heyday Books, 1991).
- Fine-Dare, Kathleen, *Grave Injustice: The American Indian Repatriation Movement and NAGPR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2).
- Fox, Paul, “Memory, the Museum and the Postcolonial World,” *Meanjin*, vol. 51, no. 2 (Winter 1992).
- Johnson, Troy R., Joane Nagel and Duane Champagne, ed., *American Indian Activism: Alcatraz to the Longest Walk*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7).

- Lagrand, James, "Whose Voices Count? Oral Sources and Twentieth-Century American Indian History,"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vol. 21, no. 1 (1997).
- Lawlor, Mary, *Public Native America: Tribal Self-Representation in Casinos, Museums, and Powow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06).
- Meringolo, Denise, *Museums, Monuments, and National Parks: Toward a New Genealogy of Public History* (Amherst and 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012).
- Novick, Peter,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Owsley, Douglas and Richard Jantz, *Kennewick Ma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an Ancient American Skelet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4).
- Rickard, Jolene, "Absorbing or Obscuring the Absence of a Critical Space in the Americas for Indigeneity: The Smithsonian's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RES: Anthropology and Aesthetics*, no. 52 (Autumn, 2007).
- Ronan, Kristine, "Native Empowerment, the New Museology, and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Museum & Society*, vol. 12, no. 2 (Jul. 2014).
- Smith, Linda Tuhiwai, *Decolonizing Methodologies: Research and Indigenous Peoples* (Dunedin: University of Otago Press, 1999).
- Smith, Claire, "Decolonising the Museum," *Antiquity*, vol. 79, issue 304 (Jun. 2005).
- Tsosie, Rebecca, "Indigenous Rights and Archaeology," Nina Swindler, Kurt Dongoske, Roger Anyon, and Alan Downer ed., *Native Americans and Archaeologists: Stepping Stones to Common Ground* (Walnut Creek: Alta Mira Press, 1997).
- Walls, Melissa and Les B. Whitbeck,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n

Relocation Policies in Indigenous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33, no. 9 (2012).

West, W. Richard and Amanda J. Cobb, “Interview with W. Richard West, Director,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American Indian Quarterly*, vol. 29, no. 3/4 (Summer-Autumn, 2005).

<Abstract>

The Rise of Public History and Its Influence on Native American History

Park, Jin-Bin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development of public history has influenced three areas of Native American history. First, public and oral history promoted more Native American voices to be heard and assisted in the formative years of Native American studies. Secondly, this paper expounds on the changes in the fields of study that traditionally dealt with Native Americans, such as museums and archeology, and reveals how the advancement of public history has transformed the ways Native American heritage is exhibited. Finally, this paper explores the debates regarding the opening of the Indian-American National Museum. The pursuit of public history stimulated the growing self-consciousness of the Native Americans and, as a result, brought to the fore complicated characters of Native American history and offered a chance to reconsider the historical and present status of the Native Americans in American society.

(Kyung Hee University / jbinp@khu.ac.kr)

주제어(Keywords)

1. 구술사(Oral History)
2. 원주민학(Native American Studies)
3.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법(Native American Grave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4. 케네윅 맨(Kennewick Man)
5. 국립 아메리카인디언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6. 탈식민주의 박물관(Post-colonial museum)